

UAE 경제 관련 최신 동향(8월) 보고

두바이사무소

2014. 9. 3.

1 거시경제

□ **(FDI)** UAE, '13년기준 GCC국가 중 가장 많은 FDI 유치 및 증가세 유지(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알루미늄 등 비석유부문으로 산업다변화, 부동산·관광산업의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폭적인 감소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금년에도 투자 안전처로서의 상대적 이점 등이 더욱 부각되어 144억불 유치 전망

○ 반면, GCC를 포함한 서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09년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억불)

	FDI inflows						FDI outflows					
	'08	'09	'10	'11	'12	'13	'08	'09	'10	'11	'12	'13
West Asia*	935	718	608	532	484	442	379	179	155	217	189	311
-바레인	18	3	2	8	9	10	16	-18	3	9	9	11
-쿠웨이트	-	11	13	33	39	23	91	86	37	44	32	84
-오만	29	15	18	15	10	16	6	1	15	12	8	14
-카타르	38	81	47	-	3	-8	37	32	19	60	18	80
-사우디	395	365	292	163	122	93	35	22	39	34	44	49
-UAE	137	40	55	77	96	105	158	27	20	22	25	29

*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예멘 포함

□ **(채무상환)** 두바이 공기업 Nakheel은 2008년 채무재조정 대상 은행 차입금 79억 디르함(약 22억불)을 전액 상환함

○ '15. 9월 만기인 23.5억 디르함은 금년 2월에, '18. 3월 만기인 55.4억 디르함은 8월에 조기 상환

- 이 중 34.5억 디르함은 UAE의 10개 은행에, 20.9억 디르함은 21개 외국계 은행에 상환

- 이로써 나킬社에게는 '16.8월 만기도래 예정인 12억불 규모의 수쿠크 채권만 채무로 남아 있는 상태

[참 고] 두바이 정부 및 공기업의 총부채는 IMF 통계('14.7)에 의하면, 정부부채 292억불, 두바이월드 296억불, 두바이홀딩사 160억불, 나킬 27억불 등을 포함하여 총 1,417억불로 추정

두바이 부채(채권 및 은행차입) 만기도래 시점 (억불)

	'14	'15	'16	'17	'18	'18이후	계
두바이 총부채*	73	91	179	137	403	272	1,417
(두바이 GDP대비)	(7.3)	(9.1)	(17.9)	(9.5)	(40.1)	(27.1)	(141.1)

* 정부 지분 50%미만 공공기관 포함, 자료원 : IMF, UAE ArticleIV 컨설팅(2014.7)

- **(국부펀드)** 금년도 상반기 전세계 국부펀드에 의한 직접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3.1% 증가한 500억불 수준으로 '08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종전 최고기록인 '08년 상반기의 510억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구제를 포함한 것임을 감안할 경우, 금년 상반기 국부펀드의 높은 투자규모는 최근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
 - 금년 상반기 중 싱가포르 국부펀드(210억불)가 가장 많은 투자거래를 기록한 가운데 UAE와 중국 국부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가장 큰 투자는 싱가포르 Temasek Holding사의 홍콩 기반의 유통업자 AS Watson Holdings사의 25% 지분인수를 위한 57억불 거래
 - 아부다비 투자위원회(ADIC)와 네덜란드 Vitol사가 호주의 Shell's Geelong 석유 정제 및 유통망을 공동 인수한 것이 두 번째 규모의 투자임

- 국부펀드의 가장 큰 관심영역은 129억불 거래를 기록한 금융 분야로, 금융분야의 주요 자문기관은 골드만삭스, Credit Suisse, DBS, HSBC, BOA,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임
- **[관광]** 금년 상반기 두바이 호텔에 머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5% 증가한 580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함
 - 호텔 관광객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한 35억불 수준
 - 관광객은 사우디,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26% 증가
 - '14.1~7월간 호텔 객실점유율은 79.4% 수준

2 건설, 플랜트 등 산업 동향

- **걸프지역 국가, 알루미늄 산업에 2020년까지 550억불 투자 계획**
 - 걸프지역 국가, 알루미늄 산업에 '20년까지 550억불을 투자할 계획
 - 이 지역 알루미늄 생산은 '11년 349만톤에서 '12년 374만톤, '15년에는 500만톤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 지역으로 부상될 전망
 - 걸프지역 국가들은 탈 석유/가스산업 확대 일환으로 알루미늄 산업의 발전을 추진 중
 - 풍부한 원자재, 낮은 에너지 가격 외에 물류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 등이 강점이며, 최근에는 저에너지 생산구조로 경쟁력을 제고

□ 두바이 운하 프로젝트 공사 3단계로 추진

- 두바이 도로 교통국 RTA이 추진중인 두바이 운하 프로젝트는 2016. 9월 준공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약 3.8억 달러로 추산
- 1단계는 1.6억 달러 규모로 터키의 마파(Mapa)와 구날(Gunal)이 2013. 11월부터 시공중
- 2단계 공사는 약 1억 달러의 규모로 중국의 CSC(China State Corporation)가 시공하며, 3단계 공사는 2.2억 달러의 규모로 금년 5월 벨하사 식스(Belhasa Six) 건설에 낙찰

□ 두바이의 대형 건설사, 공사비 수금지연으로 자금난

- 두바이 대형 건설사 아랍텍(Arabtec)과 드레이크 & 스컬(DSI)은 공사 미수금에 따른 프로젝트 자금난으로 금융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지속 접촉중임
- 두바이 아랍텍은 발주처로부터의 공사 미수금이 작년 말 72억 디르함이었으나 2분기에는 88억 디르함(약 23.9억불)으로 증가

□ 국제유가 하락 전망

- 이라크와 리비아 등 최근의 지정학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8.25일 거래에서 \$102.69/b에 거래, 브렌트 유가는 지난 8.19일 최근 14개월내 최저인 \$101.07/b을 기록하였는 바, 6.19일의 거래가는 \$113.71/b 이었음
-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100 아래 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계속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과 중국의 느린 경기회복을 들고 있음

- IEA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은 기대 이상의 양호한 공급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 이라크 원유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부지역은 아직 바그다드 정부의 안전한 통제하에 있으며, 쿠르드 자치정부도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라크 상황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음
 - 리비아의 향후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원유수출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최대 원유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은 유가를 \$100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제어할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수준에 이른 뒤 안정될 것으로 예측됨